

‘대선 불복’ ‘선친 전철’ 발언 파문…정국 급랭

장하나 ‘불복선언’ 이어 양승조 “朴대통령, 선친 전철 가능성”

새누리, 윤리특위 제소, 의원직 제명 추진…사퇴·출당 촉구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대선 불복 선언’에 이어 민주당 지도부인 양승조 최고위원이 9일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사실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도 선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말하자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중정(중앙정보부)’이란 무기로 공안통치와 유신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에 의해 암살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데, 국정원을 무기로 신공안통치와 신유신통치로 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대선 불복 선언을 했던 장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관련)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도 ‘개인적 일탈’밖에 할 말이 없는 청와대에 ‘자진사퇴’ 및 보궐선거 실시를 제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당론과는 상이한 개인성명 발표를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원내부대표직을 자진사퇴할 것을 이미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며 “당론과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치적인 견해와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장 의원과 양 최고위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 의원직 제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국회 로터리홀에서 두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 및 출당 촉구’ 결의대

회를 열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대해서는 ▲두 의원의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와 출당·제명 조치 ▲잇단 대선 불복성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 제시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날 중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사과하고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이행하는 동시에 재발방지책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당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

장표명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파문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부심했다.

당 지도부는 장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개인 생각일 뿐”이라며 거리 두기를 하며 1차적으로 ‘무대응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의원직 제명까지 거론하며 강공을 퍼자 반발도 강경해졌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장 의원의 발언을 불모로 정쟁을 획책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당선무효소송,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고, 탄핵까지 추진했다가 국민 앞에 석고대죄까지 했다. 대선불복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양 최고위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세에도

“발언의 진의는 아랑곳없이 대선 불복 프레임을 덮어씌워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런 진화 노력과 달리 당내에서는 장 의원의 발언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계속 터져나와 지도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했다. 당 소속 초선의원 21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장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발언한 것으로, 장 의원의 주장은 민심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은 트위터에 “새누리당의 호들갑은 대통령을 여왕 모시듯 하는 과잉충성”이라며 “통일이 국사가 돼야 한다고 했다가 구속된 유성환 의원 사건이 생각난다”고 적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민주당은 대선불복 망언, 장하나 의원을 즉각

황우여 대표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9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 로터리를 계단에서 '민주당 양승조·장하나 의원 의원직 사퇴 및 출당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박지원 의원 이낙연 의원 이용섭 의원 우윤근 의원 김영록 의원

NGO, 국감 우수의원 광주·전남 5명 선정

박지원·이낙연·이용섭·우윤근·김영록

박지원 의원 5년 연속

광주·전남 지역국회의원인 이낙연·박지원·우윤근·이용섭·김영록 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2013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NGO모니터단은 8일 새누리당 39명, 민주당 39명, 정의당 2명 등 모두 80명의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과 우수의원을 선정 발표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상임위원으로 법사위 박지원, 재정위 이낙연·이용섭, 산업통상위 우윤근, 농해수위 김영록 의원 등 5명이 선정됐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모범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열정적인 의정 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지역민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NGO모니터단은 지난 1999년부터 국정감사 내

용과 태도, 언론보도 등을 종합평가해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과 우수상임위원장 등을 선정해왔다.

NGO모니터단은 “이번 19대 국회 2차 국감은 제17대, 제18대 국회 국감은 물론 18대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국감보다도 극단적인 정쟁과 파행 국감이 많이 사라졌다”면서도 “국정감사 이슈가 국정원 댓글 등 국가기관의 지난 선거개입 문제, NLL 대화록, 4대강 문제 등 과거정권에 집중돼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NGO모니터단은 또 “증인채택 논란으로 일부 상임위원회가 원활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지 못했으며 또한 정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피감기관의 태도 때문에 국감 파행 및 국감 중단 사태가 빚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총평점으로 ‘C 학점’을 매겼다.

시상식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국토위 통과

개정안 10일 본회의 처리…부동산경기 활성화 기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르면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주택법 개정안은 3층 이상의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세대수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대표적 법안 중 하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시행령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리모델링 시 증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위는 이와 함께 박근혜정부 핵심

주거복지공약인 보급자리주택, 행복주택 등의 브랜드를 ‘공동주택’으로 단순화하고, 대상 부지를 철도·유수지는 물론 보급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 역시 가결했다.

한편, 국토위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공공 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운영회사 정권이 아닌, 법령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법)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여야 개헌모임, 내년 지방선거때 국민투표 추진

헌법 개정안 이달말 제시…전국 순회 대국민토론회도

여야 의원 109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은 9일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이달말 제시하고 내년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부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헌추진 의원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운영위원회를 열고 고문과 운영위원 20여명을 선임하는 한편, 개헌안 초안 성안 작업에 들어가는 등 보궐작 활동에 들어갔다.

운영위 고문은 새누리당 정몽준·이재오, 민주당 원혜영·유인태 의원 등 4명이 맡았다. 새누리당 김재경·이군현·정우택·주호영·권성동·김용태·안효대·조해진·김종훈·함진규 의원, 민주당 김동철·오영식·우윤근·노웅래·문병호·백재현·이윤석·김관영·부좌현·전해철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이 운영위원으로 선임됐다.

이 개헌모임은 개헌안을 내년 6월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 개헌특위 설치도 요구해왔다.

개헌모임은 운영위를 중심으로 개헌안 초안을 성안한 뒤 오는 26일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어 개헌안에 대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전국을 돌며 ‘순회 대국민토론회’를 열어 개헌 추진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헌모임은 연말까지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 150명 이상으로 모임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시·도별 ‘개헌시민모임’의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작년에 구성된 ‘분권형개헌추진국민연합’,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회 각계 원로들과의 활동 연계도 모색하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개헌은 꾸준히 해도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꾸준히 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며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역사적 일이므로 개헌에 관심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모임의 간사를 맡은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에서 개헌 특위 구성을 합의해달라는 요구를 양당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운영위에서 개헌안의 구체적인 윤곽을 마련하면 모임에서 이를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 첨단 월계동 LCE타워 2층 상가 960㎡ 매 18억(분할 매매 및 임대 가능)(대형병원,학원,프랜차이즈 적합)
- *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3천(보1억3천,월600만 포함)유명프랜차이즈 입점 중
- * 서구 아파트상가 1,800㎡(점포 7칸) 매10억 (보 1억1천, 월610만, 용5억9천 포함)
- * 사우나건물(8층) 17억5천(보8천,월800만 대출 9억 5천),직영 월천만수입
- * 도천동 신축창고 대지2,500㎡,건평500㎡ 17억
- * 벽진동 창고,고물상용지 2,900㎡ 임대 보2천/월200

대지/전답

- * 삼무지구 대지 405㎡(122평) 매 8억5천
- * 용전동 전(자연녹지) 1,180㎡ 매5억3천
- * 완도 약산 전(계획관리) 11,000㎡ 매 8억4천
- * 장흥 용산면 전,임야 101,851㎡ 매 6억
- * 남평 우산리 전(계획관리) 17,000㎡ 매 5억2천

기타

- * 영암 삼호중공업인근 주유소 매 9억(대출 5억)
- * 곡성 목사동 식당 1,750㎡ 매 3억9천(금매,조정가)
- * 담양 월산면 가든식당 1,520㎡ 매 3억8천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이 이하

- 화순을 군정 민원실 인근 대로변 2층 주거지 492㎡(149) 은행2억 감정 3억6천에 매도, 조정가능
- 용산동 재개발지역 주택 대지 40평 은행 4천 매도 8200
- 담양군 창평면 창평리 대지 539㎡(163)8500만원
- 함평군 영일 절되는 여관 대지 320평 건평211평 객실 21실 대출4억 교환도 가능 8억3천
- 담양군 대덕면 운암리 임야 71430평 평당 3천원 2억
- 광산구 신창동 6차선과 4차선 도로 코너 대지302평 건물은 4층 715평 사옥, 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적합 은행 18억2천 전세3억에 월 1600선 수익 증축도 가능 33억
- 조선대학교 앞 대로변 동명동 5층건물 대지318㎡(96)건평 736㎡(228) 상가와 주택 있고 원룸15개 투룸3개 보증금 1억 2천에 월 500선 수익 매도 9억6천
- 담양과 순창간 모델 땅 1745㎡(528)건물은 160평 객실18개 은행 3억7천 개발가능한 산과 교환도 가능 5억
- 그린벨트 담 담양군 창평면 고속도로 불게이트 입구 차량 진입 원활 2425㎡(734)공시가에 매도 3860만원
- 나주시 봉황면 주택 대지 135평 주택 30평 6500만원
- 상촌동 원룸 건물 대지 169㎡(51)건평 278㎡(84)원룸 1개 쓰리룸 4개 보증금 1억원 월 110 매도 2억
- 대인동 4층 식당 대지 149평 건물 438평 은행6억5천 매도 8억

매도·임대

- 매도, 수기동 상업지 705㎡(213) 원룸·투룸·쓰리룸 92개 허가, 주택가금 12억가능, 투자에 적합 7억2천
- 임대·매매, 상촌동에 신축중인 가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입주는 1월 임대는 전세1000에 월 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자자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문의 222-4994, 010-2632-5659
상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장매리엄제 (법인인가) 근린시설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 린 시 설

- ▷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감정가4억
-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 2821㎡ 감정가46억 최저가26억
- ▷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 2309㎡ 감정가13억 최저가7억

단 독 주 택

- ▷ 북구 장동동 전원주택 대지763㎡ 건평137㎡ 감정가1억8천만
- ▷ 북구 운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평161㎡ 감정가1억 최저가7천만
- ▷ 나주시 남내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319㎡ 건평297㎡ 감정가2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공 장 및 창 고

- ▷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감정가11억 최저가8억
-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30억 최저가17억
- ▷ 강진읍 송덕리 냉동,저온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27억

토 지 매 매

-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담후 가격조정
- ▷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 ▷ 광산구 지평동 자연녹지 대지,전 2115㎡ 매매5천만(조정가)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